

#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 공동정범 책임 유효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법

최근 한 연예인의 ‘갑질 논란’이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로 번지면서 연예계 전반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일부 연예인들이 암암리에 무면허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적 책임 여부가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보건의법률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의법률’) 제5조 제1항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한다. 즉,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대상이다.

2020년 개정된 의료법(2020. 12. 29. 법률 제1778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자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따라서 무면허 시술을 지시하거나 주선한 자 역시 법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시술을 받은 환자 본인은 원칙적으로 처벌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히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환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면서 적극적으로 주선하거나 영리 목적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연예인이 무면허 시술을 홍보하거나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최근 대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 의사와 비의료인의 공동관계에서 의사의 형사책임을 명확히 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도3736 판결). 개정된 의료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의사가 직접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비의료인과 공모해 이를 가능하게 했다면, 위 의사의 처벌 규정을 의료법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보건의법률로 봐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다.

대법원은 의료법 규정과 보건의법률 규정의 병존관계에 있으며, 보건의법률 단속법은 중대 범죄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영리 목적을 갖고 업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사도 공동정범으로서 보건의법률 단속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의료법에 신

설됐더라도, ‘영리 목적의 업으로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보건의법률 단속법상 중대 범죄로서 별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 대상이 의사라 하더라도 공범으로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대법원은 보건의법률 제5조 제1항의 ‘영리 목적’과 ‘업으로 하는 행위’의 해석을 통해 법 적용 범위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확대했다. ‘영리의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고, ‘업으로 하는 행위’도 단 한 번의 행위라도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본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와 비의료인의 공동책임을 인정하고, 의료법 개정 이후에도 보건의법률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한 사례다. 이는 의료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법적 장치를 공고히 한 판례로서, 의료질서 확립과 국민건강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충실히 반영한 판결로 평가된다.

/법무법인 바른

## 정시 지방대 반등?... 관건은 지역인재 채용 실적



기지수첩

이현진  
(정책사회부)

올해 대학 정시모집 원서접수 결과에서 ‘서울=정답’이라는 오래된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권과 지방권의 경쟁률 격차는 0.40대 1까지 좁혀지며 최근 5년 새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 충청권과 대구·경북권은 평균 경쟁률이 서울권을 앞질렀다. 지방권 경쟁률은 5년 새 최고치다. 숫자만 놓고 보면 ‘지방대 반등’처럼 읽힐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변화를 단순히 지방대 선호로 해석하는 것은 선부르다. 경쟁률 격차 축소는 “지방대가 좋아져서”라기보다 서울 진학에 따른 거주비 부담이 커진 영향

으로 풀이된다. 기숙사 자리를 놓치면 월세로, 월세가 버거우면 통학으로 이어지는 생활의 비용이 선택의 기준을 바꾼 것이다. 등록금에 더해 거주비와 생활비가 지고 고려하는 ‘총비용 경쟁’이 수험생 선택을 좌우하고 있는 셈이다. 수험생 선택의 언어가 ‘간판’에서 ‘생존’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흐름을 고려하면 지방권 경쟁률 상승은 ‘지방대 반등’이 아니라 ‘수도권 비용폭탄’의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지방권 선택도 ‘하향’이 아니라 ‘선별’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종로학원 자료를 보면 지방권 지원은 일부 대학으로 집중됐다. 지거국 가운데 지원자 수 상위 대학은 ▲부산대 7551명 ▲경북대 6494명 ▲전북대 6292명 ▲충북대 5759명 ▲경상국립대 5568명으로 집계됐고, 지방 사립대 역시 ▲단국대(천안) 6212명 ▲계명대

5864명 ▲순천향대 5522명 ▲고려대(세종) 4350명 등 특정 대학으로 지원이 집중됐다. 지방권 경쟁률 상승은 ‘지방대 전반의 반등’이라기보다, 수험생들이 지역 내에서도 취업·전공 경쟁력, 정주 여건을 감안해 실질적으로 선택지를 좁혔다는 신호로 읽힌다.

취업이 서울과 지방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수험생들은 서울 하위권보다 지역 내 경쟁력 있는 대학을 선택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학업을 이어갈 경로를 택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지,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지는 경쟁률이 아니라 취업 데이터가 결정한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실제 성과로 축적돼 취업률로 확인될 때, 지방대에 대한 인식은 비로소 재평가될 수 있다.

/lhj@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12일 (음 11월 2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관음 기도 날이니 신년 기도를, 48년생 운이 약할 때는 잠시 복지부동하자. 60년생 아는 길도 물어서 가야 실수가 적다. 72년생 가정사라도 내키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순리. 84년생 과거 베풀어준 공덕이 돌아온다.



37년생 뒤늦게 이직이 웬 말인가. 49년생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 61년생 오후에 읍주는 절대적으로 사양해야 할 것. 73년생 친구 만나 돈 자랑하지 않도록. 85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기 오니 반갑다.



38년생 꿈을 안 믿을 수도 없으니 결단이 필요. 50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지출도 꼼꼼히 살펴라. 62년생 계산에 차이가 있다. 74년생 아침부터 사소한 사건으로 무능을 실감한다. 86년생 부모에게 돈을 버려지 말아야 할 스피드.



39년생 문서운이 갈하니 매매가 될 것이다. 51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가는 것이 세상 이치. 63년생 주식 투자는 내일 다시 신중하. 75년생 인쇄하다가 체통 잃고 대화가 단절된다. 87년생 뜻밖의 횡재수가 있다.



40년생 외부의 감언이설을 주의. 52년생 소금 장사 나가는데 비가 오는 격. 64년생 이웃의 도움이 있으나 그래도 자중할 것. 76년생 수입이 늘어나니 품위가 달라지는 현실. 88년생 어려움이 생겨도 정신일도 하사 불성이라 했다.



41년생 생각만큼 진전이 없다. 53년생 영업에 이익이 생기고 활력이 일어난다. 65년생 승진의 기쁨이 있다. 77년생 과거의 노력은 있었겠으나 여유 있을 때 베풀어 아할 듯. 89년생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는 들뜸 나서 모두 잃게 된다.



42년생 작은 고민이 있지만 문제는 해결된다. 54년생 절이 싫으면 절이 떠날 수 없으니 종이 떠나라. 66년생 신경질보다는 대화로. 78년생 능력은 있으나 발휘가 어려운데. 90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아닌지 분석해 보는 것이.



43년생 삶의 질은 예습에서 결정되니 노력하라. 55년생 아들이 깊을수록 별은 빛난다. 67년생 무리한 행동보다는 계획 하에 실행을. 79년생 노새노새 짊어서 노새 하다 차 후에 슬픔만 남는다. 91년생 근거 없는 구설에 휘말릴 수이니 자제.



44년생 조상님의 기운으로 삶의 질이 평온. 56년생 인생은 언제나 늦는 것이 아니다. 68년생 차 바꾸는 것은 지출이 늘어난다는 의미. 80년생 무엇보다 운 좋은 것이 최상이다. 92년생 잘못된 투자로 다가를 미래에 외화내민 되지 않도록.



45년생 목표지점에 가야 하는데 길이 멀다. 57년생 생각을 바꾸면 답도 보인다. 69년생 일이 많아지지만 도와주게 되니 초조함을 버려라. 81년생 돈 달라는 형제로 고민이 많겠으나 해결책은 어디에도. 93년생 투자의 결실이 보인다.



46년생 신정이 엇그제 지났는데 가족이 모이기만 하면 싸운다. 58년생 죽마고우(竹馬故友)도 신용에서 나온다. 70년생 옹피와 남의 험담하지 마라. 82년생 주변을 위생적으로 청결에 힘쓰자. 94년생 임춘대길 건양대경이니 마음을 포근히 하자.



47년생 나이가 들어 운전은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하니. 59년생 동료와 힘을 합치니 조직이 강화된다. 71년생 남녀 이성에 대해 삼각관계 만들지 않도록. 83년생 고목에 꽃이 피듯 재기할 수 있다. 95년생 삼재라도 내 뜻대로 되는 복 삼재이다.



## 김상회의四季

오복



오복(五福)은 사서삼경의 하나인 ‘서경’ (書經)의 ‘홍범편’에 나오는 내용이다. 유교적 사고의 뿌리에 기반한 것이지만 신체 오복은 그야말로 건강한 인생에 있어 건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그래서 행복한 인생의 기본이 되는 측면을 다룬 것이다. 서경에서 언급한 오복 중에도 두 가지가 장수와 건강에 관한 것이니, 유교적 가치에서도 사람답게 잘 살고 군자 지향적인 삶에서도 건강을 얼마나 중시 여겼는지 알 수 있다. 신체 오복은 치아가 튼튼하고 소화가 잘 되며, 눈이 잘 보이고 귀가 잘 들리는 것과 대소변을 잘 보는 것을 말함이니 이 다섯 가지가 문제가 없으면 전신이 건강하다고 했다. 현대 의학 적에서도 틀린 얘기가 없다. 선조들이 중요하게 여긴 신체의 다섯 가지 복은 전인적 건강관리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신체 건강의 기능인 것이다.

결국, 잘 먹고 잘 보고 잘 듣고 잘 배출하는 것이 요점이며 이 중 어느 하나만 부족하고 기능이 떨어진다면 건강의 적신호이자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서경의 홍범편에 나오는 오복은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호덕(攸好德) 그리고 고종명(考終命)인데 수는 말 그대로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고 부는 재물이 풍족한 것, 강녕은 건강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며 유호덕은 덕을 좋아하고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고종명은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서 복된 삶의 기준으로 실로 그 어느 것도 뺄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기도 하다. 특히 자다가 잠자듯이 죽고 싶다는 것은 대부분 바람이다.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니 어떤 복을 지어야 고종명을 맞이할 수 있을까? 사주 상 오행이 골고루 있으면 대체로 평탄한 삶을 유지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3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3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9			
				8		3		7
7		2		6			1	3
				7				8
	3							4
	7			5				
1	6			3		5		8
4				6		9		
		9						6

				9	7	8		6
9	4							1
				6				
2							3	6
4								2
5		8						7
						3		
		8						2
	2		8	9	6			

9	2	7	1	9	6	8	5	3
1	2	8	6	8	9	9	2	7
8	6	9	2	8	7	1	9	1
6	8	9	7	9	1	8	2	2
9	7	1	8	6	2	1	8	9
2	8	1	9	2	8	7	6	9
8	1	8	9	9	6	2	7	1
1	9	2	8	7	8	9	1	6
7	9	6	1	2	1	8	9	8

1	8	9	9	6	8	7	2	1
6	2	9	1	9	7	8	8	1
7	1	8	6	1	2	6	9	9
2	7	1	6	2	8	8	9	9
8	8	6	9	1	1	1	8	7
9	9	8	7	8	1	1	6	2
8	6	2	1	7	9	9	1	8
8	1	2	8	8	9	9	7	6
9	9	7	8	1	6	2	1	8